



석조여래좌상(보물 제89호).

주차장을 지나 한참을 가셔야 상가 건물들이 보인다. 걸어 들어오기에는 꽤 먼 거리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가게는 텅텅 비어 있다. 산나물이나 계절 과일 등을 파는 노점상도 하나 없다. 절팔 년 전쯤 와보았을 때와는 영 판판이다. 가게의 사람들은 눈을 동그랗게 하고, 나를 바라본다. 행여 손님이 아닐까, 기대하는 눈빛들이다. 평상에 두어 사람이 앉아 있어서 말을 붙인다.

“등산객이 있기 짜옴레 묵고 살제. 절판 있는 디는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그럴 때만 딱 있고, 끊어 지는디, 여기는 그라든 알제.”

다른 지역 절 근처 상가에 비해 이곳은 월출산이라는 명산이 있기 때문에 사철 손님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 보인다.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유를 묻자 한참 동안 침묵이 지속된다. “화장실이나 하나 지서주락 하세요.”

한 사람이 참았던 방귀 꾸덕 말을 특 뵈는다. 그 말 끝에 저마다 후련을 넣는다. 상가 입구에 있는 화장실이 상가 전체의 화장실이다. 식당은 많지도 화장실이 멀리 있으니, 한 번 불편을 겪은 손님이 다시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전에 왔을 때는 훨씬 활기가 있었다는 말을 하자,

“전에는 다른 디가 장사라는 것이 없었어. 영암군에서 갈 디는 여그 밖에 없었어. 근디 지금은 다섯 발짝 가만 한 집 있고, 또 한 집 있고 그라들마. 한 삼십 집 넘겨 되는 거 같어. 딱 디 가만 뻘뻘듯한 건물 지서놓고, 그라디 여그 오겼오? 풀밭에다 그림 그레 놓고 있는디 여그를 오겼오? 글고 전에는 초파일이라면 초파일로 한 일 년 묵고 산닥 했는디, 지금은 초파일도 다른 디 가불제, 여그 오겼오?”

물꼬는 터졌다.

“글고 주차비 받는 뒤로 더 안 되볼어. 볼 것이 없제.”

# 구시바위·국사암 등 도선 국사 전설 가득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 월출산 도감사

주차장 얘기가 나오자, 다들 할 말이 많다.

“주차장도 동네 사람들 좋게 가게 하라 한당께, 동네 사람들 다 나서서 도장 찍어 줬제. 근디 주차장만 해놓고, 안 된닥 해부러, 그라께 우리만 손해 봐부러.”

“주차료 사전 원 받아 불고, 입장료 받고 공께 들이만 와도 돈 만 원 내야 된다. 누가 올라 하겼오? 다 돌아 가불제, 공께 우리 장사 하는 사람만 죽어 놔제. 군수도 와서 여그 제대로 해야 되겠다 글들마는 인자 속 들어 가부러.”

주차장을 할 때, 상가도 그쪽으로 옮겨준다는 약속

가게가 꽤 크다. ‘부자네요?’ 하였더니, 고개를 잘래 잘래 젓는다.

“아이고, 절 땅이제. 여그는 개인 땅 없어요. 건물만 개인 거제.”

상가마다 화장실이 따로 없는 이유도, 절에서 짓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세는 얼마나 내느냐고 물었더니, ‘아. 인자. 사찰이라 많이는 안 내’라고 대답한다.

“군서면 사람이 서울 가 잘 되갔고 와서 산장, 요것을 지었어.”

산장이 생기기 전에는 마을이 없었는데, 산장이 생기고 난 후 한 집 한 집 들어오다 보니, 이렇게 상가가 형성되었다는 얘기가. 신장은 35년 전쯤 생겼고, 서씨는 32년 전쯤부터 장사를 시작했다. 대개의 사하촌은 연원을 알기조차 어려운데, 이곳은 30여 년밖에 안 되었다. 가장 젊은 사하촌인데, 기록이 빠져 있다.

“여그도 잘만 해노면 무자게 잘될 것이오. 툄 딱 가 뒤불고, 배라도 띄우고 그라든 잘 될 것이오. 그라디

## 상가, 주차장서 먼 거리에 위치 주민들 이전 희망 사하촌 역사 30년...불자보다 등산객 많이 찾아와

을 하여, 그것을 믿고, 도장을 찍어 주었는데, 아래쪽에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상가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완의 대웅전 뒤에 대웅보전이 있다. 대웅보전의 마당이 넓어졌다. 도감사는 통일신라말 도선이 지었다고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영암은 도선의 고향이다. 그래서 도감사에서 그리 멀지 않는 구림리 일대에는 도선 국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국사의 어머니가 빨래를 하였다는 영암 성기동의 ‘구시바위’, 처녀인데다 명분없는 아이라서 아이를 버렸던 반석인 국사암, 아이를 비둘기 때가 품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된 마을 이름 구림(鳩林). 모두 도선 국사와 관련된 전설의 구체적 증거물이다.

대웅전 뒤로 이어지는 숲길을 걷는다. 계곡을 지나면 석조여래좌상을 모신 미륵전이 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 석불의 모습이 말끔하다. 십여 년 전 처음 보았을 때는 어떤 신비감 같은 게 느껴졌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세월의 더께가 벗겨진 것 같은 석조여래좌상. 결과부좌를 하고 향마촉지인상을 하고 있는데, 현판은 미륵전이라 불어있다. 흔히 미륵부처의 모습은 반가사유상으로 표현되는데, 언제부터 미륵으로 모셔졌는지 알 수 없다.

오직 상가뿐인 도감사로 다시 든다. 마을의 내력에 대해 알 만한 사람이 없느냐고 물으니, 변영회장을 찾으라 한다. 가르쳐준 가게로 들어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앉아있다. ‘변영회장이 맞아?’고 물으니, 그렇다고 한다. 변영회장을 맡고 있는 서금단(70)씨다.



도감리.



범종각과 주초만 남아있는 건물 터.



대웅보전과 3층석탑.

안 하드라고.”

왜 이렇게 사람 사는 문제는 다른 생명들의 터전을 빼앗는 쪽으로 향하는 것일까. 상가가 형성되기 전 이곳은 풀과 나무의 터전이었을 것이고, 귀뚜라미, 지렁이, 거미, 쥐며느리들의 집이 있었을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인간은 누구나 욕심쟁이다. 나서는 발길이 더 조심스러워진다. 행여 발에 밟힐 지도 모르는 작은 생명이 염려되어서이다.

영암=이대훈(사인)·본지 객원기자

## “천연 염색한 옷 입고 아토피 완치”...색(色)으로 건강한 삶 살기 실천

‘참살이’ 천연염색방 서수현 사장



오월이 되어 땀나뉘 가지 끝에 들어오는 색의 색을 무어라 할 수 있을까. 짙레꽃 필 무렵의 그 여린 감의 귀를 무슨 색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그래서 색(色)은 신비하다. 그 색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꿈꾸며 사는 이

가 있다. 도감사 매표소 근처에서 ‘참살이’ 천연염색방을 하고 있는 서수현(44)씨다.

서씨는 단순한 염색장이 아니다. 활력이 있고 경험이 바탕이 된 산지사이다. 그에 의하면, 현대에 질병이 많이 생긴 이유는 우리 몸이 거부하는 염료를 너무 많이 쓴 탓이다. 천연염료로 된 옷을 입으면 안 걸릴 병이, 참살이

에서 벗어난 염료로 만든 옷 때문에 생긴다는 것이다.

“둘째가 중이염에 아토피였어요. 병원에 다녀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천연염색한 옷 입고 나서 완치 됐어요.”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 옷이나 이불이기에 그것들은 그만큼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 자연에서 추출한 섬유나 염료는 우리 몸을 자연 속에 두지만, 화학 섬유나 화학염료는 우리 몸을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피부암 같은 질병 속에 둔다는 것이다.

그런 염색장이 염마를 뚫어 막내이들은 세 살 때부터 천연염색 옷을 입고 싶었다 한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지 아이들의 시기가 심했다. 할 수 없이 유치원 갈 때는 청바지를 입었다.

“건강에 좋다고 이것저것 찾아서 먹으려 다니고 그러는데, 옷과 이불은 항상 우리 몸에 붙어 있었잖아요?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지 생각해 보라는 말이야.”



www.njutcm.edu.cn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 1. 남경중의약대학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선 80점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 3.5 이상)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박 사 과 정	3년	3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계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10월 12일까지

###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東 仙林大學城·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조기유학생모집 초·중·고1,2학년(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 학교)

### ♣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 10매 · 입학신청서 1통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